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5)

묻되,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답하되, 사자는 사람 물고 개는 흙덩이를…

경허 스님이 충남 천장암에 머물 무렵, 계룡산에 태평상인(太平上人)이란 지혜와 덕을 갖춘 스님이 있었다. 경허 스님의 명성을 들은 태평상인은 서산 부석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태평상인이 경허 스님이 있는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달마가 서쪽(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허 스님은 대뜸 주장자를 들어 후려쳤다.

태평상인이 다시 말했다.

"때리려면 때려도 좋소이다. 그러나 조사서래의를 맞힌 것은 아니지 않소이까?"

이 말을 들은 경허 스님이 곧 되짚어 말했다.

"무엇이 조사서래의인가?"

이번에는 태평상인이 주장자로 경허 스님을 후려갈겼다.

얻어맞은 경허 스님이 말했다.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거든(獅子咬人 漢盧逐塊)."

이 말을 듣고 태평상인이 공손히 말했다.

"법은(法恩)이 망극합니다."

경허 스님은 웃으면서 법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사(달마)가 서역에서 온 뜻'이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즉 불법의 대의를 말한다. 불조(佛祖)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다.

<오등회원(五燈會元)>에는 "모름지기 사자가 사람을 물듯이 하되, 한(漢)나라 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 같이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데 정신을 쏟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주혜해 선사는 경전(이론)에만 집착하는 수행자를 한로축괴(漢盧逐塊)라 경책하고, "경 · 율 · 논은 자성의 쓰임일 뿐이다. 그것을 읽으며 외는 사람이 바로 자성 그 자체다(經律論是自性用 讀誦者是性法)"고 일깨우고 있다.

부처(自性)는 경을 읽거나 외는 그 대 자신이다. 경전과 이론은 자성을 깨닫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언어나 문자의 방편에만 매달리는 수행자는 흙덩이를 쫓는 개일 뿐이다. 매순간 불법을 쓰고 누리면서도, '불법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은 소를 타고 소를 찾거나 세종로에서 서울 찾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불법의 대의를 묻는 태평상인의 질문에, 경허 스님은 말과 생각을 떠나 문득 때리는 행위로 자성의 전체작용(全體作用)을 드러냈다. 하지만 태평상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사서래의를 맞히지 못했다'는 잠꼬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에 경허 스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태평상인에게 하니, 그 역시 똑같은 방(奉)으로 응수한다. 태평상인이 짐짓 알면서도 경허 스님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불법이 이것이니 저것이니 분별하며 흙덩이를 쫓는 개가 되지 말라'는 경허 스님의 경책에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깨달은 사람의 언행은 그 어떤 것도 자성의 작용을 온전히 드러내는 반면, 말만 익힌 사람은 어떤 언행을 나타내도 확신이 부족한 모방에 불과한 것이다.

경전 · 이론은 깨달음의 방편
방편만 좇으면 '法' 놓치게 돼
매순간 佛法 쓰는 건 자기자신

임제 스님은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을 것이다", "문자에 속지 않으면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 조사(祖師)다"라고 했다. 밖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진다. 똥 덩어리 찾아 헤매는 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어 당당한 사자(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대장부, 여장부의 삶이 아닐까.

김성우 객원기자

앉으나 서나 禪 아닌 시간 있는가?

서울 법천사 운문선원 철야정진현장

장군죽비 '경책' 받으며 '일행삼매' 탐구

'정중선 · 동중선' 함께 수행…매월 1·3주 토요일

운문선원 재가수행자들에게 선원장 일수 스님의 장군죽비는 번뇌망상과 혼침을 타파하는 묘약이다.

2월 24일 토요일 저녁, 서울 성북동 언덕에 자리잡은 법천사 운문선원. 아담한 정원을 가로질러 불전에 참배하고 선원장 일수(一守) 스님을 뵌 후, 곧바로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8시부터 시작된 정진은 좌선에 앞서 경직된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요가로부터 시작됐다. 입승인 혜오 스님과 함께 20여 불자들이 온 몸 구석구석을 차근차근 풀어준다.

"딱! 딱! 딱!"

입정을 하자마자, 선원장 스님의 장군죽비가 살벌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춘다. 필자 역시 양 어깨에 세 방씩, 여섯 방의 경책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정진에 들어갔다. 양 어깨에 짊어졌던 천 근의 짐이 부서지면서 홀가분해진 느낌이었다. 경책은 자정을 넘기면서 졸음이 쏟아질만 하면 계속 이어졌다. 2년만에 철야정진에 나서면서 체력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의외로 졸음이나 망상은 적었다. 다리와 허리의 통증 역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철야정진이 수월한 것은 장군죽비를 세 번, 모두 18방이나 맞은 효과 때문이라 여겨졌다. 혼침에 떨어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맞는 장군죽비는 그야말로 천둥과 번개와 같은 위력을 지닌 호법신장이나 다름없었다.

이튿날 오전 2시 30분부터 선원장 스님의 소참법문과 故 서옹 스님의 <벽암록>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무사히 철야정진을 회향했다. 당시 84세의 고령에도 <벽암록>을 제창하는 서옹 스님의 벽력같은 목소리가 가슴을 울린다. 새벽 예불을 끝으로 법회가 끝났것만, 대부분의 불자들이 아침까지 정진을 이어간다. 어느 절에서도 보기드문 용맹정진의 모습이다.

법천사는 고불총림 백양사 운문선원장을 역임한 일수 스님이 2005년 11월 시민선원을 연지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 1백여 재가자들이 정진하는 수행도량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법랍 36년 가운데 20년이 넘게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 온 선원장 스님이 재가자들을 위해 '철야 참선 정진회'를 결성, 매월 첫째 ·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직접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운문선원이 불과 1년만에 이처럼 재가자 용맹정진 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은 정중선(靜中禪)인 좌선과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동중선(動中禪)을 함께 가르치기 때문이다. 본래 조사선은 노동(운력)과 법문듣기, 좌선이 하나로 이어지는 마음공부여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動靜)이 선(禪) 아닌 때가 없다. 하루 24시간이 그대로 수행이 되어 일행삼매(一行三昧)에 이르는 동정일여의 공부에 대해 일수 스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원래 간화선은 정중, 동중 공부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자나 깨나 일여해야 한다(寤寐一如)'는 것이죠. 일속에서 화두 드는 습관을 들이면 운전할 때도 화두가 또렷하지만, 운전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욱 무르익어 돌과 나무처럼 무심해지면, 거기서 다시 끊어짐 없이 지어가면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됩니다. 이것은 천만 갈래의 마음을 화두에 다 모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타성일편이 되어야만 무의식에 가까워져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성성적적(惺惺寂寂: 또렷하고 고요함)한 공부가 이어집니다. 이 무의식에서도 더 열심히 정진해 이를 넘어서면 견성(見性)이라고 조사 스님들은 말씀합니다."

차도 오래 마셔봐야 차 맛을 알듯이, 화두 공부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며, 더욱 간절해진다. 화두 드는 힘이 생겨 탄력을 받게 되면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데, 이를 득력(得力)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때가 선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봉 스님은 득력해서 3 · 7일(21일)이면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동중 공부에서 힘을 얻으면, 정중 공부는 오히려 쉽게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좌선과 함께 동중선을 함께 배운 덕분에 운문선원 재가 수행자들은 수행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 10년 동안 '무자(無字)' 화두를 들고 있는 여래행(55 · 서울 둔촌동) 보살은 "오랫동안 스승을 찾다가 선원장스님을 뵙고부터 수시로 지도 · 점검을 통해 경책과 격려를 받으며 공부하다보니, 집과 선원을 오가며 환희심 나게 정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도들의 공부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일일이 점검해 주는 일수 스님의 지도법은 당대의 선지식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공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해인사의 성철, 혜암, 법전 스님과 불국사의 월산 스님, 통도사의 월하 스님, 봉암사의 서암 스님, 동화사의 진제 스님, 태안사의 청화 스님, 백양사의 서옹 스님 등 큰스님들로부터 독참(獨參)도 받고 법문도 많이 들어서 공부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운문선원은 매월 둘 · 넷째주 일요일 2시에 청년법회를 열어 참선과 함께 금강경(미황사 금강 스님 법문), 초발심자경문 강좌를 열고 있다. (02)745-6939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게시판

선법문과 철야정진
경북 봉화 축서사는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9시에 참선법회를 연다. 무여 스님의 선법문에 이어 선열당, 운수각, 심검당 등 3곳에서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하고 새벽예불로 회향한다. (054)672-7579

참선교육 73기 개강
수선회는 3월 13일~4월 10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4층에서 제 73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참선의 자세, 참선의 종류, 선종 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 참구법 등 교육. (02)732-5960

우 왐사락키따 스님 초청 집중수행
경기도 안성 황룡사는 4월 6일~4월 27일(3주간) 찬메 사야도(우 자나카 스님)의 캐나다 제자인 우 왐사락키따 스님을 초청,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031)674-3578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